유적지 순례 75

司正公 諱 壽海와 龜峰公 諱 德麟

사정공 휘 수해 귀봉공 휘 덕린

사정공 수해를 추모하기 위한 재사(안강읍 두류 1리 310)

봉산 재사 내당

사정공 묘소(안강읍 두류 1리)

사정공 묘정비

종택 율산정사(안강읍 두류1리 368)

20세 효충의 묘소(포항시 흥해읍 상달산)

의충의 6대손 치웅을 기리기 위한 목양정(경주시 평동 수북마을 770)

사정공(司正公)은 태종 10년 용궁읍 대죽리에서 경력공(經歷公) 휘 관(寬)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향일재(向日齋)이며 포항 효자동 대잠에 입향했다. 증조는 송고공(松皐公) 휘 초(軺)이고 고조는 문정공(文靖公) 휘 희정(希正)이다.

공이 오위(五衛)의 사정(司正)으로 있을 때 단종(端宗)이 손위됨에 백씨 죽림공과 함께 사육신과 연좌되어 연일(延日)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공은 마당에 해바라기를 심고 문지방에 향일재(向日齋)라고 편액하니 선왕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을 의미한 것이다. 세조 12년 57세로 졸하니 묘소는 포항시 효자동이었는데 포항제철소 건설로 안강읍 두류리 비봉산으로 이장하였다. 효자동 구지에 유허비가 있다.

봉산재는 향일재(向日齋) 수해(壽海)를 추모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1968년 안강읍 두류1리 310번지에 세운 재사이다. 본 재사는 1469년 영일군 대잠동에 추원재를 건립하고 묘향을 받들었으나 포항제철소로 편입되어 묘소와 함께 두류동으로 옮기고 봉산재(鳳山齋)라 이름하였다. 봉산재사기문에 "단종이 어려움을 당하여 금고를 면치 못하고 영일로 귀양 오셨다가 병술(丙戌)에 운명하셨다. 재사를 지어 5백여년 내려왔으니 후손들에게 음덕을 주셨다. 이곳에 제철소가 서니 문중회의를 열고 향일재공이 적거(謫居)하였던 고을 봉산낙맥에 묘지를 구하니 이곳이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두류산 기슭이다. 재실 또한 이곳으로 옮겨 세우니 후손들이 유숙하며 제향을 올린다. 선생의 독실한 우애, 지극한 효성, 고고한 절개는 옛 글에 소상히 실려 있다. 후손들에게 봉산재 현판을 걸은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18대손 택훈" 두류리 봉산재 옆 368번지에 종택이 있다.

사정공은 4남 2여를 두었으니 장남은 효충(孝忠), 차남은 경충(敬忠), 3남은 달충(達忠), 4남은 의충(義忠)이다.

효충(孝忠)은 사직이며 경주에 시거(始居)하였으며 묘소는 포항시 흥해읍 옛고을 상달산에 있으며 배위가 뒤에 있다. 효충의 아들 명추(命錘)는 봉직랑 상의원 직장이고 집중(執中), 득중(得中), 계중(繼中)을 두었다. 3남 계중(繼中)은 군자감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묘소는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재궁동 주산 선고묘계하에 있다. 계중의 장자는 덕기(德麒)이며 무후하고 차자는 귀봉공 덕린(德麟), 3자는 덕란(德鸞)으로 군자감정으로 추증되었다. 의충(義忠)은 호가 송죽당(松竹堂)이고 묘소는 포항시 흥해읍 죽전리에 있다.

의충(義忠)의 6대손 목양정(牧養亭) 치웅(致雄)은 선조 병오(丙午)년에 출생하여 일찍이 경학을 연마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선친이 졸하니 여묘살이를 하여 공조참의로 증직되었다. 97세에 졸하니 묘는 안동 아동에 있으며 교리 이중구가 묘갈을 찬하고 정자 최현필이 썼다. 경주시 평동 수북마을770에 선생을 기리기 위한 목양정(牧養亭)이 있다.

귀봉공(龜峰公) 덕린(德麟)

중종 24년에 출생하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문인으로 심학(心學)의 주종을 터득하였다. 명종 8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명종 11년 선균관 전적(典籍), 명종 12년 예조정랑, 13년 병조정랑, 명종 15년 회덕현감, 명종 21년 하동현감을 지냈으며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명종 2년 양재역벽서(良才驛壁書)사건으로 스승 이언적(李彦迪)이 유배되고 6년 후 죽자 선조 4년 사림들과 경주 안강에 옥산서원(玉山書院)을 세워 제향코자 했다. 그러나 실권자의 미움을 사 외직으로 밀려났는데 노모를 시봉하기 위해 선조 3년 영천군수로 부임하였다. 선조 5년 옥산서원을 창건하고 성균관 대사성 지제교 초당(草堂) 허엽(許曄)에게서 기문을 받았다. 같은 해 합천군수로 부임하여 고을을 크게 순화시키니 사람들이 유애비(遺愛碑)를 세워 공의 공덕을 찬미하였다. 선조 6년 곤양군수에 제수되어 부임길에 병으로 45세에 졸하였다. 묘소는 안강읍 두류리 중현에 있다.

옥산서원(玉山書院) 기문(記文)의 요지(要旨)는 '합천군수 권덕린이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선생을 위해 서원을 지었으니 그 시말을 기록하고 또 서사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요(爲先生起書院 其記始末 且名齋舍哉)라 하였다. '선생의 착하고 어진 행실은 퇴계가 찬술한 행장에 있으니 경모(景慕)하고 앙탄(仰歎)한지 오래다. 임신 이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사우와 강당, 동서양재 문루 모두 40여간이나 되니 장하도다 안강은 선생이 살던 곳이다. 자옥산에 별서를 세워 소요자락한 곳이다. 비록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지 못 했으나 마음 속으로 선생을 존숭하여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 계유년에 옥산서원이라 사액하였으니 의연히 주자의 강의하는 곳에 아름다운 이름과 학문의 빛남은 지극하다 하겠다. 나는 쇠약하고 병든 때문에 경각(警覺)하는 일을 이룰 수 없으니 동쪽만 바라보며 섭섭할 뿐이다. 선생의 도덕이 고명 박후한 것을 존모할 뿐만 아니라 침잠진밀한 공부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그 독실하고 견확한 뜻을 힘쓴다면 선생의 고을에서 영원히 추로의 선비가 날 것이고 더욱 무궁할 것이니 어찌 선생에게 찬란한 빛이 있지 않으리오(不但慕其道德之高厚 不但學其深潛縝密之功 而但勵其篤實堅確之志 則先生之鄉永爲鄒魯之多士 益悠遠而無窮矣 豈不于先生有光哉 知制誥 許曄 謹記)''

귀봉정사(龜峰精舍)는 공이 안강읍 양월리 구성아래에 귀봉서사를 세워 독서하며 강학(講學)하던 장소로 하였는데 후손들이 1651년 경주시 안강읍 두류1리 831번지로 이건하고 정사(精舍)로 개칭하였다. 6.25동란에 소실되어 1963년 문중에서 다시 세웠다. 귀봉정사는 산세가 수려하고 풍광이 빼어난 곳에 있으며 정사안 마루에 걸은 귀봉정사 중수기문은 김황(金木晃)이 썼고 첨모당기(瞻慕堂記)는 12대손 염수가 썼다.

공은 영조 14년(1738년) 처음 강동면 왕신리 운천서원(雲川書院)에 이언괄(李彦适)과 함께 배향되었는데 1745년 훼철되어 정조 9년(1785년) 운곡에 추원사를 건립하고 시조 태사공(太師公)을 주벽으로 죽림공을 동배 귀봉공을 서배로 배향하였다. 1976년 중건하고 운곡서원(雲谷書院)이라 개칭하였다.

귀봉유집(龜峰遺集)이 있으며 규장각의 명헌록과 매헌록에 있으며 영조 14년 강동의 운천서원(雲川書院)에 배향되었다가 정조 9년 운곡서원(雲谷書院)이 창건되자 죽림공(竹林公)과 함께 배향되었다. 목만중의 선생 유집서문에서 "선비들이 기묘사화를 겪고 배우기를 꺼려했는데 공이 회재선생의 초막에서 조석으로 구의(摳衣)하니 공의 사후 운곡사에 배향하여 후세 학문에 뜻을 두고 향도(嚮道)하는 선비들의 긍식(矜式-모범을 보임)할 바 있을진저!"라 하였고 이휘녕의 서문에 "해동연원록(海東淵源錄)에 회재선생의 문인은 귀봉선생이라 하였고 대책(對策) 두편에 '넓은 학문으로써 천하를 바로잡는 근본을 삼고 경륜(經綸)으로써 천하를 달통하는 공을 삼는다' 천하의 근원을 기르는 것은 성도(誠道)이고 천하의 기업(基業)을 짓는 것은 성추(誠推)라 했으니 두 책(策)에 선생의 도를 듣고 전함을 얻었다 하겠으니 가히 귀봉집(龜峰集)이라 하기에 족하다" 라 하였다.

귀봉공은 3남을 두었으며 장남은 사의(士毅), 차남은 매헌공(梅軒公) 사민(士敏), 3남은 사눌(士訥)이며 무후하다.

장남 **사의(士毅)**는 명종 7년에 출생하여 순릉참봉을 지냈으며 선조 29년에 졸하니 수는 45세다. 묘소는 포항시 기계면 가천의 산막동에 있다.

사의(士毅)의 아들 **응생(應生-25세(世))**은 호가 노헌(魯軒)이며 밀양 한포리에서 태어나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난(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약관에 창의하여 많은 전적을 거두었고 화왕산 곽재우의 회맹에 참가하였다. 선조 38년 재행으로 추천되어 참봉, 직장, 찰방 등을 역임하고 광해군 난정에서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인조 반정 후 등용되어 사헌부 감찰, 진천현감을 지냈다. 말년에 동경잡기를 찬수하였다. 인조 25년 졸하니 77세였다. 유고가 있고 부조지전(不祧之典)이 내리니 1795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68번지에 부조묘를 건립하였다.

노헌공(魯軒) 응생(應生)은 5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기(炁)의 손자 경태(慶泰)는 호가 두헌(杜軒)이고 숙종 계묘(癸卯)에 출생하였다 후손이 공을 추모하기 위하여 두류1리에 두헌재사(杜軒齋舍)를 건립하였다. 차남은 퇴암(退庵) 임이며 임의 아들 통덕랑 중구(仲垢-27세(世))는 인조 계유생으로 후손들이 300여년전 공의 묘소를 수호하고 공을 추모하기 위하여 재사를 건립하였으나 퇴락하여 1919년 안강읍 두류1리 436번지에 금천재(金川齋)를 중수하였다.

귀봉공의 6대손 이며 중구(仲垢)의 손 잠(潛)은 숙종 신묘(辛卯)에 출생하여 일생을 책을 읽으며 후학양성을 락(書史自娛)으로 삼고 명리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학문을 닦기 위해 만년(晩年)에 영조 21년(1745년) 경주시 안강읍 두류1리 315번지에 월천정(月川亭)을 세워 자적하였는데 고종 8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17년 새로 지었고 1995년 중건하였다. 마루에 보원당(報遠堂)이란 편액이 있고 김헌주의 기문과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차운한 시판(詩板) 이 걸려 있다.

귀봉공의 차자 **매헌공(梅軒公) 사민(士敏)**은 다음호에서 상술한다.

〈자료제공 :권혁광 경주종친회장 권혁근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감수·편술 : 현봉 권경석〉

29세 잠을 위한 재사 월천정(두류1리 315)

귀봉공이 강학하던 정사(안강읍 두류리 831)

귀봉정사 내당

귀봉공 묘소(안강읍 두류리 중현)

귀봉정사 첨모당기문

25세 응생의 부조묘(안강읍 두류리 368)

27세 중구를 위한 재사(두류1리 436)

두헌공 경태를 위한 재사(두류1리)